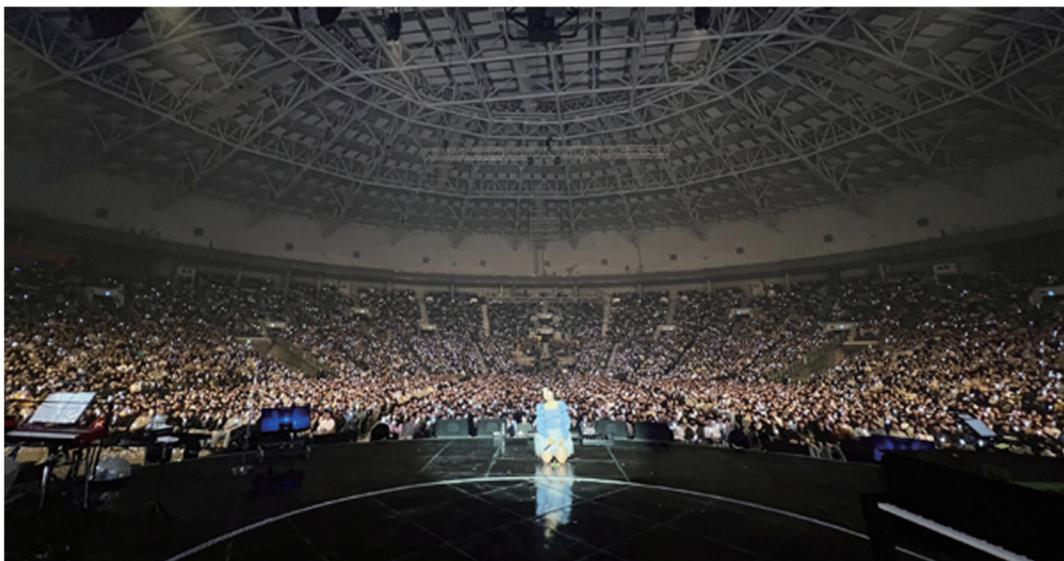


‘20주년’ 윤하, 영원한 ‘스물’ 能... 입체적 서사·사운드

20년 활동 압축하는 세트리스트... 관객 몰입감 높인 이머시브 사운드
“데뷔 당시 신이 ‘20년 뒤에 이럴 거야’라고 얘기해줬도 믿지 못했을 것”



할 수 있다 能(能).
3일 오후 서울송라이터 윤하(36·고윤하)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 같은 한자를 올렸다. P.R.R.W.로 시작한 이날 공연 초반 윤하는 살짝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3월 11~12일 케이스포돔 바로 옆 SK핸드볼경기장에서 성료한 '2023 윤하 앙코르 콘서트 'c/2023YH''에선 처음부터 날아다녔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번에 스스로도 '아이

스 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윤하는 윤하다. 11개월 만에 SK핸드볼경기장 바로 옆 큰 1만명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채운 그녀는 팬덤 '홀릭스'를 이내 단숨에 매료시켰다.
고심한 세트리스트는 20주년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정리했고, 케이스포돔 대중음악 콘서트에 드물게 도입된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으로 객석 곳곳에서 음향이 다각적으로 들리게 했다. 청룡의 해에 용띠인 윤하가 단연 올해 주인공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자리였다. 피케팅(띠가 튀길 정도의 예매 전성)을 충분히 치를 만한 콘서트였던 셈이다. 끝까지 예

매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 고침을 하며 취소표를 예매한 보람이 컸다.

◆“가지 못해 지난 그 길론”에서 시작해 “기다리고 기다리는 나에요”로 끝난 공연 서사

우리는 추억을 서사화하지 않으면, 확연히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 것이 아닐 수 있는 우리 과거는 본인만의 화법으로 다시 정리돼야, 향후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의지대로 개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하의 이번 콘서트는 특기할 만한

다. 지금까지 발표한 약 330곡 중 고민하고 고민해 20여곡을 들려준 윤하는 지난 20년을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이야기로 환원(還元)해냈다.

윤하는 국내보다 일본에서 먼저 데뷔했다. 2004년 만 16세의 나이에 일본에서 첫 싱글 '유비키리'를 내놓았다. 이듬해 '호오키보시'(해성)로 오리콘 일간 싱글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오리콘 해성'이라는 별칭을 달기도 했다. 직접 피아노와 기타를 연주하며 밴드 사운드를 들려줬고, '틴 록' 또는 '틴 팝'으로 대명사로 통했다. 2006년 국내 데뷔 싱글 '오디션(Audition)'을 발매했다. 특히 재작년 3월 발매한 '엔드 시어리 : 파이널 에디션'에 실린 타이틀곡 '사건의 지평선'이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윤하도 다시 조명됐다.

초창기 발매곡과 최근 히트곡이 골고루 망라된 이번 세트리스트는 이런 서사를 효율적으로 압축했다.

'P.R.R.W.'에 이어 '블랙홀' '물의 여행' 같은 최신곡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특히 '물의 여행'에서 윤하의 시원한 고음이 폭발했다. 쪽쪽 뺨은 성량은 몇 년 동안 윤하의 콘서트 중 가장 보컬 컨디션이 좋다는 걸 증명했다. 그녀가 이번 콘서트를 위해 얼마나 자기관리를 잘 했는지에 대한 방증이었다.

'마이 송 앤드(My Song and)...', '엘리스' '어린 욕심' '오디션' 같은 초창기 곡들이 울려 퍼질 때 울드 팬들의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해성', '비밀번호 486' '살별' 무대도 발군이었지만 '슈퍼소닉(Supersonic)' 무대는 이날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곡의 드라마틱함과 윤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극렬한 아연환을 선사했다.

'이마가다이스키(今が大好き)'(한국어 버전), '해성', '비밀번호 486' '살별' 무대도 발군이었지만 '슈퍼소닉(Supersonic)' 무대는 이날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곡의 드라마틱함과 윤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극렬한 아연환을 선사했다.

은 후끈 달아올랐다. “주춤주춤하면 록이 아니다”라는 윤하의 정의에 따라 모두 객석을 단숨에 박차고 일어났다. 라이브 밴드 사운드의 청량한 질주감이 일품이었다. 건반이 주무기인 윤하는 ‘자우림’ 김윤아처럼 보이길 원한다며 일렉 기타를 잡고 연주하기도 했다.

이날 본 공연 마지막곡인 ‘사건의 지평선’을 부르기 전 윤하는 팬들에게 20주년 소회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오늘도 여러 번 틀렸어요. 고윤하는 망해도 윤하 공연은 망가지지 않게 여러분이 살렸다”며 우선 고마워했다. 박효신, 도이(유희열), 김동률, 조용필 등 케이스포돔 무대에 섰던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직접 본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공연이 “너무 좋았거리지 않았나”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스물은 그래도 괜찮은 나이라며 긍정했다.

특히 윤하는 일본에서 데뷔 당시 첫 라이브 공연한 장소도 떠올렸다. 시부야의 스푸마(spuma)라는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었다. 윤하는 “작은 주방 문 앞에 건반을 두고 주방에 있다 나와 인사하고 연주한 기억이 있어요”라며 “이후 20년 동안 중간에 힘들어 포기할 뻔한 적도 있고 별 일을 다 겪었어요. 하지만 그런 길목마다 ‘당신의 노래는 이어나갈 가치가 있어요’라며 응원해주시는 ‘에인절 투자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했다. “데뷔 당시 신(GOD)이 ‘20년 뒤에 이럴 거야’라고 얘기해줬도 믿지 못했을 텐데, 제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비쳤다. 이후 ‘사건의 지평선’을 부르며 본 공연이 마무리됐다.

앙코르 첫 곡은 ‘스무살 어느날’이었다. 윤하는 ‘사건의 지평선’을 부르기 전까지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을 거 같다고 했는데 ‘윤하의 20주년 축하해! 홀릭스와 30주년도 함께 해♥’라는 플래카드를 홀릭스가 모두 들자 평평 눈물을 흘렸다. 이후 드라마틱하게 서사가 이어지는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을 불렀고 ‘기다리다’(20주년 버전)으로 팬들과 다시 만남을 기억했다.

영화 ‘도그데이즈’ 김덕민 감독, 20년 숙성의 맛



“전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데뷔하게 된 게 좋아요. 다행스럽잖을까요.”
영화 ‘도그데이즈’(2월7일 공개)로 영화감독이 된 김덕민(51) 감독은 1973년생이다. 영화감독이라는 직업 특성상 첫 출발에 적당한 나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데뷔를 50대에 한다는 건 이례적이다. 김 감독은 2003년에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뛰어들었고, 그가 참여한 첫 번째 영화가 세상에 나온 게 2004년이었다. 그는 영화감독이 되는 데 20년이 걸렸다. 그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땐 세 작품 정도 스태프로 참여하고 나면 입봉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하며 웃었다.
2007년에 나온 영화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끝내고 나자 이미 30대 중반이었다. 그가 생각했던 세 개 작품을 마친 뒤였다.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2011년 ‘로맨틱 해븐’에 참여하고 나서부터는 조감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품도 없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다. 다들 감독보다 나이 많은 조감독을 원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인연상륙작전’ 조연출로 복귀하기 전까지 그는 영화 현장에 없었다.
“버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시나리오 쓰는

2003년 영화 일 시작해 감독 데뷔에 20년 “나이 많아 조연출도 못하던 시절 있었다”

것밖에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시나리오만 쓴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추리물·액션물 같은 걸 썼어요. 제 시나리오를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김 감독은 캠퍼스 커플이던 여자친구와 결혼했고, 2003년엔 아들이 태어났다. 별이 일정하지 않아 아내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릴 순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아내의 남편의 꿈을 지지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기회가 왔다. 우연찮게 윤제균 감독의 JK필름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과거 함께 일했던 후배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줬고, JK필름에서 ‘그것만이 내 세상’(2018) ‘영웅’(2022)의 조연출로 또 한 번 일할 수 있었다.
“영웅’ 촬영이 4회차 남았을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 감독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 제가 ‘도그데이즈’라는 작품으로 연출 데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분을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난 세월을 보상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들 반응이요? 계속 저를 우쭐 우쭐 해줬죠.(웃음) 그러면서 정말 데뷔하는 게 맞냐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을 때도 아내와 아들이 잘하고 있는 게 맞냐고 잔소리를 했어요.(웃음)”
김 감독이 인터뷰 중에 가장 자주 언급한 건 가족이었다. 아내와 아들 덕분에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변하게 했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아마 제가 30대 때나 40대 때 데뷔했으면 지금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어께에 뽕이 가득 차 있었겠죠. 길머티 잔뜩 든 영화나 찍고 있었을 겁니다.”
영화감독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버티고 또 버티면서 김 감독은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됐다고 했다. 물론 그는 “그렇다고 제가 완성된, 아주 성숙한 인성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다”는 말을 덧붙혔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변한 게 아니라 아내의 지속적인 잔소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김 감독의 얘기였다.
“절 인간 만들어주려고 잔소리를 해준 거죠.(웃음) 그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아내와 전 정말 달라요. 가령 책을 읽는다고 하면 전 추리소설 같은 것만 읽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인문학 책도 읽고 사회과학 책도 읽고 뇌과학 책도 읽고 우주에 관한 책도 읽어요. 아내는 제게 그런 넓은 시각을 공유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좀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었어요.”
첫 영화 공개를 앞두고 설렘과 걱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해 잠을 못자기도 한다고 말한 김 감독은 그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인터뷰가 있기 며칠 전 시사회를 찾은 아들이 해준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는 얘기였다. “시사회에 아들과 아들 친구 몇 명이 왔어요. 영화 끝나고 전 관계자들과 잠깐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슬쩍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퀄리티가 좋으니까 몰랐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행복은 뭐라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김 감독은 앞으로 어떤 감독이 되고 싶냐는 말에 “생계형 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도 영화 연출로 밥벌이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들려 말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농담을 던지며 자신이 만들고 싶은 영화 현장에 관해서는 자못 진지한 얘기를 했다.
“윤제균 감독님께 배운 게 있어요. 윤 감독님은 현장에서 다른 스태프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세요. 제가 오랜 시간 조연출 하면서 느끼게 감독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니까요. 윤 감독님이 딱 그런 분이죠. 저도 기다릴 줄 아는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게 행복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시스

고레에다 히로카즈 ‘괴물’, 50만명 ↑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괴물’이 개봉 66일 만에 50만 관객을 넘어섰다.
3일 배급사 NEW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9일 개봉한 ‘괴물’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관객 수 50만18명을 찍었다.
“오늘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

도’(2022) 이후 처음으로 일본 실사 영화 중 50만 관객을 돌파했다. 최근 15년간 일본 실사 영화 흥행 기록에서도 흥행 2위에 올라섰다.
앞서 ‘괴물’은 고레에다 감독이 만든 일본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번 작품 전까지 최고 흥행작은 2013년에 나온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12만8012명)였다. 고레에다 감독 영화 중 국내에서 가장 흥행한 ‘브로커’(126만명)는 한국영화다.
지난해 칸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 작품은 같은 반 학생인 ‘미나토’와 ‘요리’가 학교 폭력 문제로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드라마 작가로서 일본 최고로 손꼽히는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썼고,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영화 음악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을 만들었다. 미나토를 연기한 쿠로카와 소야, 요리를 맡은 히이라기 히나타와 함께 안도 사쿠라, 나가야마 에이라 등이 출연했다.

‘록키’ 칼 웨더스 별세...향년 76

영화 ‘록키’ 시리즈에서 ‘아폴로 크리드’ 역으로 유명한 미국 배우 칼 웨더스가 별세했다. 향년 76.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웨더스의 가족은 “사랑하는 형제이자 아버지였던 웨더스가 지난 평화롭게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고 성명을 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웨더스는 1976년 개봉한 ‘록키’에서 주인공 록키(실베스터 스탤론)의 라이벌이자 세계 헤비급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록키2’(1980), ‘록키3’(1982), ‘록키4’(1987)에 연이여 출연하며 영화의 흥행을 이끌었다. 스탤론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웨더스가 없었다면 ‘록키’에서의 영광을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정말 훌륭했다. 그가 편히 잠들기를”이라며 그의 죽음을 추모했다.



1948년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웨더스는 1970년 미국프로풋볼(NFL) 오클랜드 레이더스팀에 입단해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했다. 1974년 은퇴 후 배우로 전향해 ‘프레데터’(1987) ‘해피 길모어’(1996) ‘더 컴백스’(2007) ‘사카고 저스티스’(2017) 등 75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다. 드라마 ‘만달로리안’에서 크리프 카가 역으로 2021년 미국 에미상 연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